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악 - 엘 시스테마 참관기¹⁾

권 가 람

2007년 BBC 프롬, 말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한 베네수엘라 출신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과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Orquesta sinfónica Simón Bolívar)는 우레와 같은 청중의 박수 소리에 비장한 침묵으로 응답했다. 1시간을 훌쩍 넘긴 연주에 지휘자와 단원은 극한 몰입 상태에 이르며 숨조차 내쉬기 버거운 상태가 되었고, 협연하던 성악가들은 지극히 감정을 절제하느라 입술을 꼭 깨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랜 전통과 실력을 갖춘 기라성 같은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 반열에 30여년 남짓한 이들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순간이었다.

관객과 평론가의 극찬을 제외하더라도 이 날의 연주가 더욱 빛났던 이유는 또 있었다. 소멸이 아닌 삶의 긍정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이 철학적인 교향곡의 해석으로, 베네수엘라에서 1975년 시작된 합주를 통한 음악교육 엘 시스테마(El sistema)의 진가를 클래식 본고장 유럽에서 인정받게 된 셈이다. 두다멜과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는 2010년까지 도이치 그라모폰과 5개의 음반을 출판했고, 레퍼토리 또한 베토벤에서 스트라빈스키까지 상당히 넓은 시대를 포괄한다. 이제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는 대양을 넘나드는 세계 순회 일정으로 아젠다의 빈틈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두다멜은 2018년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

1) 필자는 201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현지 연수에 통역으로 참여하였다.

임지휘자 사이먼 래틀의 후임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무대에서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역동적인 몸짓과 선율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연주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베네수엘라 사회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8세가 되면 마약을 팔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손에 약 대신 악기를 쥐어주자는 다소 ‘소박한’ 취지에서 탄생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1975년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박사가 시작한 음악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 운동이다.

엘 시스테마의 열기, 그러나 현실과의 간극

2012년 가을 필자가 처음 방문한 음악사회운동 본부(CASPM: Centro de acción social por la música)는 엘 시스테마의 상징으로서, 오케스트라의 리허설과 연주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건축가 토마스 루고(Tomás Lugo)가 설계했다는 이 건물은 아니나 다를까 엘 시스테마에 대한 자부심의 기호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채광의 정도에 따라 색깔의 농담이 변하는 바닥의 타일부터 최첨단의 음향학적 설계로 구축된 야외음악당까지, 적도의 태양을 찌를 듯한 이 마천루는 이제 구호 사업을 넘어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엘 시스테마인의 예술적 욕망을 표현하는 듯 했다.

옥상에서 바라본 카라카스의 전경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엘 시스테마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본부 왼쪽에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음악문화센터의 건설이 한창이었는데, 센터의 개소와 동시에 이곳은 음악사회운동 본부와 함께 카라카스의 음악 중심 지구로 변모할 참이었다. 북쪽 전방에는 엘 시스테마의 창시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업무를 본다는 시몬 불리바르 재단이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엘 시스테마와

관계된 건축물들이 그 규모와 위업으로 카라카스 중심의 지표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히 엘 시스템아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였다.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의 1%를 엘 시스템아가 담당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였다.

이와 같은 엘 시스템아의 성공을 논할 때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에 대한 평가를 빼 놓을 수 없다. 차베스 정권은 베네수엘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음악미션(Misión música)²⁾ 통해 엘 시스템아에



‘엘 시스템아는 공사중’,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음악문화센터 건설현장

테마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분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정권의 운명과 엘 시스템아의 미래를 구분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은 비슷했다. 애초부터 엘 시스템아는 아브레우 박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시작된 사회구호 사업이며, 그 철학은 특정 정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웠던 것은, 국제 사회에서 차베스와 엘 시스템아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트렌드 메이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네수엘라에서는 전자에 비해 후자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필자가 베네수엘라에 체류하는 동안 타고 다닌 전용 버스 운전기사는 엘 시스템아가 유명한가라는 질문에 “글쎄, 차베스가 동네마다 진료소 만든 건 아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2) 볼리바르 미션(Misiones bolivarianas)은 차베스 정권이 실행하고 있는 가난, 질병, 문맹 등의 퇴치를 위한 일련의 공공정책이다. 차베스 정권은 그 중에서도 음악 미션(Misión música)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음악 교육인 엘 시스템아를 지원하고 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개는 좀 아는 것 같아. 누구지? 머리 펄럭 펄럭하는 지휘하는 애?”라고 대답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암보한다는 이 아마추어 음악가에게 조차도 엘 시스테마는 구스타보 두달멜을 제외하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많은 베네수엘라인에게 엘 시스테마는 그 ‘구호의 철학’과는 별개로,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국가 전역에서 약 삼십만 명의 아동이 엘 시스테마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듯 음악을 통한 베네수엘라 사회 개혁이 오케스트라 교육에 참여하는 음악가들의 꿈이라면, 이는 여전히 치열한 설득이 수반되어야 할 쉽지만은 않은 작업임이 분명하다.



카라카스 시내 모든 구조물에 빠지지 않는 낙서 ‘차베스와 함께’

음악, 사회 운동의 도구

엘 시스테마의 창립 초기부터 이 프로그램과 긴밀히 일한 현지의 음악가는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며, 지금 베네수엘라 사회에서 음악가라는 직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이야기한다. 누클레오에서³⁾ 만난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바이올린 연주자, 오보에 연주자 등 전문

3) 누클레오는 엘 시스테마의 철학 아래 음악 합주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거점기관을 말한다.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레퀴엠」 연주 모습(2012년 11월 3일, 시몬 볼리바르 음악당)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회에서 음악가가 매우 좋은 인식을 갖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사회운동 본부에 갖추어진 수십 대의 맥킨토시, 훌륭한 음향시설을 갖춘 리허설 및 공연장은 필자와 함께 현지를 방문한 한국인 음악가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전문 음악인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다. 누클레오에서 4년간 음악 교육을⁴⁾ 받은 학생의 진로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엘 시스테마의 1차적 목표는 구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 양정보다는 음악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4년간의 음악 교육, 여기까지를 우리는 사회사업이라 부른다. 음악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뉴욕에서 트럼펫을 공부하고 전문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다 귀국하여 엘 시스테마 교육에 매진하고 있

4) 엘 시스테마의 누클레오에서 제공하는 정규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4년 과정이다.

는 현지 음악가의 이와 같은 ‘확신’은 나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사람의 몸동작, 목소리, 악기의 선율이 뒤범벅 된 ‘종합 예술’에서 음악을 독자적 예술 장르로 분리시키고, 그 존재만으로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했던 것이 지난 수백 년간 서양의 음악이 기울인 노력이 아니었던가! 이런 맥락을 감안했을 때, 이 트럼펫 주자의 말은 예술, 특히 연주되는 순간 악보의 감옥에서 풀려나 스스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절대 음악의 숭고함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는 많은 음악가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 트럼펫 주자가 털어 놓은 자기 고백적 음악 경험을 통해, 왜 음악가가 음악의 사회적 도구성을 주장하는지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누클레오의 음악 감독직을 맡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음악을 가르쳐야 할 학생뿐이었고, 이들을 위한 장소, 강사 섭외는 전적으로 음악 감독의 역량에 달려있었다. 마음을 간신히 추스른 그는 다른 음악가 친구 여럿을 설득한 끝에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모금 순회 연주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회에 걸쳐서 해냈다. 그 결과 누클레오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갖추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후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작은 음악회 또한 개최하게 되었다.

“나이가 아주 어렸지만, 연주가 끝나고 지휘봉을 내려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음악 교육을 계속 받아오기만 하던 나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짐의 무게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연주야 아주 엉망이었죠. 꺾, 꺾…… 그러나 무언가를 되돌려주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책임을 잘 완수해 낸 나 스스로에게 너무 놀랐고, 그 때문에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음악가에 의하면 4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여겨지는 엘 시스테마에서도 열악한 사회적 여건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 합주할 때 의자가 부족해서 서서 연습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이 음악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시스템마’(시스템) 없는 엘 시스템마의 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연습공간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 교실 복도를 연습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정부 설득을 위해 누클레오의 음악 교사들이 문화부에 가서 ‘올 나잇 음악회’를 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엘 시스템마에 종사하는 음악가들의 질문은 공동체 이상주의에 기대기보다 ‘주어진 자원으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것인가’라는 냉철한 현실 판단에 기반한 듯 보인다. 사실, 주어진



의자가 부족하여 서서 연습하는 학생들

자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기에 스트레스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공동의 음악을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이따금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으로 요약되는 공동체 의사소통의 메커니즘을 익혀나가는 것은 엘 시스템마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음악 감독 및 강사에게도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되었다.

실제로 음악을 통해 공동체 의사소통의 메커니즘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현지의 모습은 악기 연주의 테크닉과 음악 해석을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합주를 통해 음악을 완성하는 동안 동료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피어 티칭’(Peer teaching)은 필수적이며, 즉각적인 것이었고, 가르침과 배움은 스승에서 제자라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실례로 몬탈반(Montalbán)에 위치한 누클레오에서 참관한 금관 앙상블 수업에 사용된 곡은, 학생 중 한 명인 호른 주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멜로디를 금관

양상블에 적합하도록 편곡한 노래였다. 이 양상블을 지도하던 교사는, 학생의 편곡 작업을 돕기 위해 자신이 공부해야 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음악을 연습하는 합주 교육의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그 출발지와 종착지가 없이 무한으로 연속되는 호혜성의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다수가 모인 엘 시스테마라는 공동체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방식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서로의 이해와



‘학생 때문에’ 편곡 공부를 덩달아 하게 된 호른 선생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통의 자질과 거의 유사한 것 같다. 악기를 잡은 지 3개월 만에 음악회를 개최했던 트럼펫 주자가 흘렸던 고진감래의 눈물은, 이해와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소통방식을 배워나감에 있어서 음악이라는 것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한 것에 대한 감격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음악의 사회적 도구성이라 함은 오히려 음악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한다기보다 그것의 새로운 가치 발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무엇이 이 공동체를 지속시키는가

라 링코나다(La rinconada) 누클레오에 방문한 첫날, 학생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1악장을 총 리허설 중이었다. 아직 단단히 여물어 밀도 있는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온 몸의 힘을 실어내는 연주에 점



라 링코나다의 리허설 시간

점 흥분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급기야는 연주가 끝나고 엘 시스테마의 상징인 「맘보」를 연주해 달라고 외쳤는데, 악기를 정리하던 학생들이 악기를 다시 꺼내 들고 상기된 얼굴로 연주를 시작했다. 4시간이 넘어가는 연습 시간에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마무리되는 리허설이 아쉬워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 핑계로 악기 정리를 천천히 하던 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맘보의 핵심 동기(Motif)가 나오자 트럼펫을 연주하던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지휘자의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고, 심지어 터지는 웃음에 악기를 내려놓은 채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결국 이를 기점으로 합주는 궤도를 이탈하고 말았고, 음악은 흥을 주체 못한 학생들의 즉흥연주로 마무리되었다.

무엇이 엘 시스테마라는 공동체를 계속되게 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정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시몬 볼리바르 재단과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기는 하나, 음악을 하는 것은 어린이와 부모의 선택이기에 엘 시스테마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태에 가깝다. 이러한 자발

적 공동체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인가’임을 상기해 볼 때, 엘 시스테마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놀랍도록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엘 시스테마가 다른 공동체와 차별화되는 점은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느끼고 교감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음악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몰입의 단계에 들어설 때 극도로 느끼는 흥분감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강한 카타르시스를 준다. 맘보를 연주하던 학생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주체하지 못하던 흥이 바로 그 느낌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그저 ‘좋다’, ‘즐겁다’ 혹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감정이 바로 이 절정의 흥분감이며, 이 때문에 아이들은 누클레오를 ‘끊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가와 일을 경제의 논리로 철저히 구분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어쩌면 본능으로서 인간의 ‘음악성’을 극도로 억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페루의 아이마라 족이나 짐바브웨의 쇼나 족에게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음악이 특정인만이 계발할 수 있는 소질이라기보다 인간이면 자연스럽게 즐기는 일상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는 신적 권위를 갖게 된 것은, 음악행위의 유희적 측면을 제거한 채,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전문가 공연문화가 지배적으로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수많은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공감과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음악을, 오늘도 고통 받으며 행여 누가 볼까 유리창 없는 연습실에서 고독한 독주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누클레오가 끝나는 시간에 자녀를 데리러왔다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아브레우 박사와 두 다멜을 배출한 바르키시메토에는 합주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부모로 구성된 중창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감정의 절제와 억제를 배워야 어른이 되는 사회에서, 이 부모들은 중창을 통해 자신의 흥을 표출하고 몰입의 상태에 이르며 인간 본능으로서의 ‘음악성’을 깨워나가는 것



바르키시메토의 부모님 합창단

같았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하는 음악이 재미있어서 누클레오에 온다. 사람들이 이곳에 계속 발걸음을 하는 것은, 많은 이상주의적 공동체가 주장하는 호혜성의 원리에 의한 것도, 혹은 민중의 힘(Poder popular)이라고 선전하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도덕적 강박에 의한 것도 아니다. 물론, 숙제를 도와주는 선생님, 끼니를 잘 챙겨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 제공되는 양질의 간식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개인이 아닌 다수일 때 극대화되는 예술적 체험을 통한 카타르시스야말로 공동체의 성원들을 놓지 않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던 호모 무지쿠스(Homo musicus)를 재발견해 낸 엘 시스템아가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권가람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재학